



고흥군이 최근 고흥군가족센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고흥 문화도시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문화도시 성공적 조성 지역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이 문화생태계 활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의 힘을 모으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정하용 부군수, 고흥군가족센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고흥 문화도시센터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군과 각 기관은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활성화 주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사업증진 협력 지원 ▲문화도시 시민협력단으로 문화도시 공동 추진 ▲상호교류와 문화도시 협력체계 기반의 공동사업 확대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취재본부=진종언 기자

광양 배알도 1·2해상보도교 ‘별 헤는·해맞이 다리’ 확정

광양시가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경 관광명소화사업의 하나로 건설되는 배알도 해상보도교 2개소의 명칭을 확정해 공개했다.

광양시는 공모를 거쳐 망덕포구·배알도 해상보도 1교와 배알도·근린공원 해상보도 2교의 명칭을 각각 ‘배알도 별 헤는 다리’와 ‘배알도 해맞이 다리’로 명명했다고 7일 밝혔다.

제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는 망덕포구의 정병옥 가옥에서 보존된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별빛 감성을 담았다.

제2교 ‘배알도 해맞이 다리’는 빛과 별의 도시 광양의 무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하는 태양과 뻗어온 일출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임을 동시에 상징한다.

광양시는 오는 16일 망덕포구·배알도를 잇는 제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 정원도시 실현 법제화가 강력한 수단”

정원·도시재생·기후변화 등 비전 포럼 개최 문화특별시 조성 등 새로운 도시 모델 제안

순천시가 정원도시 법제화를 추진하며 최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조경학회장 조경진 교수를 비롯해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호 신구대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 대학원 교수가 참여했으며, 최정민 순천대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다.

포럼에 앞서 참여자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과 순천만습지 등을 둘러보는 녹색인프라 탐방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조태훈 순천시 기획예산실장의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소개와 핵심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정원도시비전 및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조경진 교수는 “30만 정원도시 순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전략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주민이 주체가 돼 주도하고 다른 지자체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포럼의 핵심내용인 법제화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산업정책에서 관리하는 ‘정원’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개념통합과 ‘정원도시’의 명확한 법적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는 개발하는 것이 아닌 재생하는 것이다”며 “개발의 흔적에 신음하는 도시를 치유하고,

시민들이 주인 역할을 다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정원을 늘리고, 마을정원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정원도시 순천에 정원연구와 도시 컨트론타워 기능을 갖춘 정원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하면서 “정원특별시는 의료·복지와 연계한 건강특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문화특별시로서 정원도시는 지속가능성을 꾀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모델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최초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모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원도시진흥법 제정을 위해 향후 국회에서도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6월 2050순천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30만 정원도시 순천 비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후 시민 공론화, 핵심사업 부서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중이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보성군이 복지시설 개선 홍보 캠페인을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복지시설 개선 홍보 캠페인

보성군이 지난 7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에서 ‘사회복지의 시작은 복지시설 개선부터!’라는 주제로 복지시설 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 행복지킴이

단, 보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해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 개선 활동에 힘을 보탰다.

보성군 관계자는 “빈부격차가 심화되

는 경쟁 사회에서 나눔에 인식하고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거나 가난에 대한 낙인 등은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극복해야 할 심리적 장벽이다”며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해 복지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으로 전개됐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하반기 구례학사 장학금 수여

구례군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례학사에서 (재)구례장학회주관으로 하반기 구례학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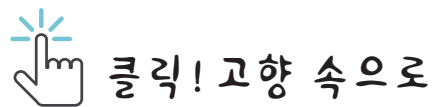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구례장학회 이사, 재경구례군향우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입사생을 격려했다. 학사 입학생 24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백운장학회 등 개인장학회와 구례장학회 외에도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한국펄스

박영서 대표가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수여했다. 구례 출신 권혁태 작가는 본인의 저서 대하소설 노고단을 4권씩 구례학사 등에 기증해 고향 출신 선배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7월 화곡동에서 현재 대림동으로 새롭게 터를 옮긴 지 1년이 된 구례학사는 24실의 원룸형 시설이다.

/전남취재본부=손석범 기자



순천 조곡동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순천시 조곡동복지기동대가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조곡동 복지기동대는 마을주민과 전기·주택 설비 전문가로 구성돼 재능기부를 통한 전동·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과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이다.

이번 활동은 수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 등 4가구를 찾아가 싱크대와 도배·장판을 교체해주는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신성식 조곡동복지기동대장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명절을 보낼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 여성단체협의회, 일·가정양립 캠페인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라떼아빠스쿨’ 참여자 15가족과 함께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일·가정양립 문화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지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기쁘다”며 “아빠들의 육아 부담감을 해소하고 공동육아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떼아빠스쿨은 가족 소개 그림 그리기, 성격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빠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육아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대, 진로·취업 프로그램 홍보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최근 ‘개강맞이 알·쓸·순·대’를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알·쓸·순·대’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의 졸업말로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고용정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하반기에

‘진로청사진 로드맵 경진대회’와 ‘모의 면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ONE-STOP 통합지원’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심상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다각적인 온택트 환경을 마련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로·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